

경제

총선 등 정치 불안·유럽 재정 위기·고유가·엔저...실물경제 곳곳 위기 징후

한국경제 3~4월이 고비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자금 덕분에 주가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무엇보다도 해외 경제가 불안하고 국내 총선일정에 따라 정치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3~4월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엔 해했지만 실물경제는 한발중=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FnGuide)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08개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모두 110조6000억원이다.

이들 기업의 작년 9월 말 영업이익 전망치는 117조6000억원이었다. 5개월만에 7조원 가량 줄었다.

작년 9월 말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정점으로 치달은

면서 코스피가 1,600선 중반까지 폭락한 시점이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보다 기업 실적 전망은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흘러든 자금이 주가를 띄우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실물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는 얘기다.

이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글로벌 IB가 발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평균 3.4%다.

이들 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7월만 해도 4.4%였으나 9월 3.9%로 떨어지더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의 위기 징후는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의 올해 1월 무역수지는 19억 5700만달러 적자로, 2년만에 흑자 행진을 마감했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

주는 광공업생산지수도 작년 12월까지 석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지도 넉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럽위기·고유가·엔저...곳곳에 '지뢰'=올해 실물경제 전망에 가장 큰 압운을 드리우고 있는 변수는 역시 유럽 재정위기다.

ECB의 유동성 공급과 최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패키지 승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는 빠르게 완화되고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3~4월에 돌아오는 대규모 국제 만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차환 부담을 가중시켰다.

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는 모면하더라도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립뉴스

차 보험료도 인하戰

삼성화재 2.2%·동부화재 2.4% ↓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2% 내리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평균 2.4% 낮추기로 해 손보사 간 인하 폭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2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를 2.2% 내리는 방안에 대한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가 21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율 2.3%보다는 0.1%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내부 논의의 당시에는 2.3% 인하하는 방안이 나왔으나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반영해 2.2%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맡겼다"며 "인하율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3월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의 결정은 훨씬 과감했다. 동부화재는 22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2.4% 인하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요청했다.

삼성화재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이 높은 것은 자동차 손해율이 떨어지는 등 제반 요인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온라인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공격 경영으로 1위에 오르는 등 손보업계의 주목 대상이다.

대형 손보사들이 서로 다른 인하 폭을 발표하자 그동안 다소 느긋했던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은 내부적으로 2.2~2.4% 사이에서 인하 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2.4%를 내리기로 한 동부화재를 따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연립뉴스



봄내음 풀풀~ 23일 (주)광주신세계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봄내음이 물씬 나는 봄나물 모음전을 열어 취급 물(100g) 1400원, 속(100g) 2100원, 달래(1팩) 2800원, 냉이(100g) 1200원에 판매한다.

전자상거래, 지난해 999조원

전년보다 21% 늘어...5년만에 두배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23일 통계청의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액은 전년보다 21.2% 늘어난 999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연도별 총액은 2006년 414조원, 2007년 517조원, 2008년 630조원, 2009년 672조원, 2010년 824조원 등이다. 거래액이 5년 만에 갑질 넘게 불어난 것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작년 거래액은 200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975조원)보다 많

았다. 작년 GDP 대비로는 8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7년 24.9%, 2008년 22.0%였다가 2009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6.7%로 둔화했지만, 2010년 22.6%에 이어 20%를 웃돌았다.

지난해 부문별 증가율은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기업간(B2B) 거래가 22.1%, 기업·소비자간(B2C) 15.7%, 기업·정부간(B2G) 10.6%, 소비자간(C2C) 14.8%였다.

4분기 거래액만 보면 285조7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23.8%, 전 분기보다 16.4% 늘었다. 부문별로는 2010년 4분기보다 B2B가 23.5%, B2G 35.0%, C2C 26.0% 늘었지만 B2C는 3.7% 증가에 그쳤다. 특히 B2C는 전 분기보다 1.5% 줄어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B2C 위축은 작년 말 내수 둔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29조 62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었다. 음식료품(30.5%), 농수산물(20.4%), 생활·자동차용품(18.3%), 여행·예약서비스(17.6%) 등이 증가했다. 소프트웨어(-29.4%), 꽃(-7.8%)은 감소했다.

연립뉴스

롯데마트 계산원 경쟁률 6.7대 1

석·박사 등 2670명 몰려

롯데마트가 은퇴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시니어 사원 모집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대기업 간부 출신 등이 몰렸다.

23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만 56~60세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시니어 사원 모집에 2670명이 지원했다. 선발 인원은 400명으로 경쟁률은

6.7대 1이다.

이 가운데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지원자가 70여 명이고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서 간부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400여명에 달한다. 남성 대기업 간부 출신 등이 몰렸다.

이들은 계산원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문에 맞게 물건을 골라 담아 배송 준비를 하는 '온라인 피커'로 일하게 된다.

연립뉴스

광주테크노파크 타이타늄센터 10년 성과

업체 2→45곳·매출 5억→650억

광주테크노파크의 타이타늄·특수합금부품개발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과 외자 유치 등 의료용 부품소재산업 활성화의 선봉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국내 유일의 타이타늄 관련 사업화지원센터로 의료용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는 인플라트 전용 정밀가공 컴퓨터수치제어(CNC) 등 64종의 주요 장비가 구축돼 있다.

지난 10년간 센터는 13개의 외자기업 유치를 비롯해 국산화 시장 진입(47건), 정부연구개발(R&D)사업 참여 지원(160건), 지적재산권 확보(129건), 28개의 창업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의료기기 제조관련 인증(60건), 고용 창출(580여명), 시제품 제조(2100여건) 등을 통해 지난해 650여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2개사에 그쳤지만 의료용 부품소재 기업이 지난해 45개사로 늘어나는 등 의료산업 집적화에 성공, 국내 유일의 의료용 부품소재 전문생산단지로 탈바꿈했다.

(주)타티엠과 (주)쿠보텍 등 일부 기업은 고부가가치 의료용 부품소재의 식약청 인증과 해외 인증(CE),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타이타늄 센터장은 "광주가 첨단 부품소재 메카로 자리잡으면서 외자 기업들이 찾아오는 등 기업역량 강화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둬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통해 선도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레미콘 공장 이틀째 가동 중단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협상의 결렬로 전국 레미콘 공장이 이틀째 가동을 멈췄다.

23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750여개 중소 레미콘 업체들을 포함한 전국 레미콘 공장이 모두 조업을 중단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도 중소 레미콘사들의 동참 요구와 차량을 이용한 물리적 방해로 역시 전날에 이어 제 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일 이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는 (조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어제 회의에

서 서로 입장을 확인했으니 내일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열린 레미콘·시멘트·건설업계의 3자 회의에서는 최종 수요자 인 건설업계 측에서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 가격을 먼저 확정해야 레미콘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멘트 가격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건설 공사 현장은 아직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24일 회의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다음주부터 공사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립뉴스

자산관리공, 대학생 채무상환 2년 유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의 채무상환을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업일이 없는 29세 미만 청년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

도 된다. 캠코는 또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불량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는 제도를 도입했다.

연립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text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World Hearing Aid, the stage of the century is the world!).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and a list of nationwide branches.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ISO, CE, GMPC) and a list of nationwide branch locations with phone numbers.